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최상 웰니스 선사”

순천시, D-50 프레스데이 행사
삶 속으로 들어 온 정원 내세워
“미래도시 이정표 박람회 만들것”

오는 4월1일부터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웰니스 시대를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D-50프레스데이’가 해외 방송 매체에 보도됐다.

순천시는 2013년에 이어 10년 만에 박람회를 다시 개최하면서 그동안 국내에서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왔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 제로 실천과 도심으로 들어 온 정원 조성을 통해 최고 힐링과 건강을 선사하는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은 이 같은 박람회의 의미와 방향을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D-50프레스데이’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취재진 70여 명이 참석해 국내외 방송 매체에 보도되기도 했다.

2023정원박람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러지는 국내 최장기 국제행사로 현재 각계각층으로부터 입장권 구매와 기부가 쇄도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대회 참가를 위해 들어 오는 독일 학생 2000여명과 태국, 베트남 국민 6000명은 이미 박람회 입장을 예약을 마친 상태다.

순천시는 도심 곳곳을 이 시대 건강 트렌드인 어싱(맨발 걷기)길로 조성해 건강과 행복을 대표하는 치유의 도시로 만들었다.

도심 속 저류지를 정원으로 바꿔낸 ‘오천그린광장’과 차만 다니던 아스팔트 도로를 잔디길로 탈바꿈 시킨 ‘그린아일랜드’를 개막 전 전격 공개해 새로운 광장 문화의 선도 모델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원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는 ‘가든스테이’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내놓는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D-50프레스데이’ 행사가 진행됐다. 순천시 제공

다. 국가정원 내 총 35동의 숙박동을 꾸며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를 활용해 고급 만찬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정원 안에서 즐기는 특별한 힐링 프로그램까지 준비하고 있어 최상의 웰니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 세

계에 보여주겠다”며 “이제는 웰니스와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시대, 도시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필요한 때다. 창조적인 도시계획으로 미래형 도시 모델을 만들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도심 일원에서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 동안 개최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탐진강변에 파크골프장 조성
장흥군, 13억 투입

장흥군이 올해 13억원을 들여 탐진강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20일 장흥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탐진강파크골프장은 공인규격을 갖춘 18홀 규모다.

장흥군은 파크골프장 개장에 앞서 ‘장흥군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파크골프장 사용료 책정, 시설물 운영 근거 마련 등 사전준비에 나섰다.

파크골프는 몸에 부담이 적으면서 적정 활동량을 보장할뿐 아니라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장흥군에서는 200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으나 경기장이 부족한 편이다.

관산파크골프장(9홀)을 제외하면 기존 폐교와 운동장을 활용한 경기장 2곳뿐이다.

이번에 개장하는 탐진강 파크골프장은 접근성이 좋고 토요일장과 가까워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기대가 높다.

장흥-김전환 기자

딸기 영농현장 맞춤형 컨설팅
보성군, 신규농업인 대상

보성군은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단과 함께 딸기 재배경력 3년 미만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현장 컨설팅을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딸기 영농현장 맞춤형 컨설팅은 주산단지에서 반복 제기되는 집단 영농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맞춤형 기술 지도를 추진하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컨설팅은 토양, 병해충, 작물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토양 분야-딸기 재배용 배지 조건 및 양액 관리기술 △병해충 분야-병해충 방제 기술 및 안전 생산을 위한 작물보호제 사용요령 △작물 분야-딸기 기형과 발생원인 및 대책에 대한 기술 지도 등을 중점으로 강의했다.

현장 컨설팅에서는 딸기 시설 재배 시 양액 농도 및 급액량과 배액 관리를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보성군이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단과 함께 딸기 재배경력 3년 미만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지도를 추진하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농현장 컨설팅을 추진했다. 보성군 제공

4월부터 상수도요금 13% 감면
순천시, 물절약 수용가 대상

순천시가 올해 4월 고지분부터 한시적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절감한 수용가에 13% 상수도 요금 감면한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식수난과 농업 및 공업용수 부족 등 시민의 불편과 고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절수 운동 참여를 위한 물 절약 수용가 요금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감면 기간은 4월 고지분부터 가뭄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 적용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거북선축제 대상 수상
2022지역온라인축제



여수거북선축제가 ‘2022지역온라인축제’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2지역온라인축제’에서 제56회 여수거북선축제가 대상을 수상했다.

(사)K-문화융합협회(이사장 신현규) 주최로 진행된 ‘2022지역온라인축제’는 전국 지자체의 온라인축제를 대상으로 온라인 참여 서비스와 시민 참여율 및 만족도 등을 평가했으며 지난해 개최된 전국 310개 온라인축제(온·오프라인 병행 포함)가 대상이 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어디서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여수시는 처음으로 모바일게임 임진왜란, AR 증강현실을 활용한 거북선을 찾아라, 온라인 전국 국민 거북선퀴즈 등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한 바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장흥군, 맞춤형 생계급여 최대 5.47% 인상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장흥군은 올해부터 맞춤형급여 생계급여액이 최대 5.47% 인상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도 지난해 3500만원에서 올해 5300만원으로 완화 시행된다.

맞춤형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흥군은 2022년 12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3560세대 4704명을 관리하고 있다.

매월 생계비를 지급해주는 기초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연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미만, 재산가액 9억원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초의료급여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1종 수급자(근로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는 본인부담금

이 없거나 최대 2500원만 부담하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다.

기초주거급여는 수급자 명의의 주택을 노후도 평가해 집수리를 해주는 서비스로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임차가구인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료를 현금지원 받을 수도 있다.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해주는 기초교육급여도 신청할 수 있다. 장흥-김전환 기자

광양시, 학교급식 식재료공급·배송업체 선정

광양시는 ‘2023년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위에서는 학교급식 지원계획(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차액지원, 친환경 매실청 지원·Non-GMO식재료 차액지원)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농산물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과 배송을 책임질 업체를 선정했다.

시는 지역 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200개소, 2만4000명의 아동·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115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내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 광양매실청 지원사업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은 지역 내 친환경 쌀 생산농가들이 생산한 유기농쌀로 공급하고 사립·단설유치원도 40일 추가

해 230일을 지원한다.

보육시설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차액지원 사업비 100%를 시비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광양원예농업을 공급업체로 선정해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확대와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광양교육청 관계자들과 합동점검을 통해 식재료 잔류농약 및 안전성 검사, 공급업체 점검 등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나선다. 광양-안영준 기자

‘꼼치’ 치어 2500만 마리 방류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겨울철 남해안 별미로 알려진 꼼치 자원 회복을 위해 2월 말까지 여수 두문포 해역에 치어 250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20일 밝혔다.

물메기로도 불리는 꼼치는 남해안과 동해 남부해역 수심 50~80m에 서식한다. 12월부터 이듬해 2월에 연안으로 이동해 해조류 줄기 등에 산란하고 죽는 1년생 어종이다. 과거에는 생김새가 개성이 강하고 맛이 없어 외면 받았지만 지금은 겨울철 어업인 소득원으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지역 어업인의 자원 회복 요구가 늘고 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미래수산연구소는 2018년부터 여수지역 꼼치 통발 어업인과 업무협약을 하고 민·관 공동 자원회복에 나섰다.

지금까지 총 1억1839만 마리를 방류한 결과 전남지역 꼼치 생산량은 2018년 132톤에서 2020년 330톤, 2022년 345톤으로 증가했다. 박간재 기자